

의족 스프린터 첫 트랙 훈련 “자신있다”



“나는 블레이드 러너다” 의족을 달고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트랙에 올라서는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4·남아공)가 24일 오전 대구시 동구 율하동 선수촌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육상 D-2)

남아공 피스토리우스

100m 전력질주 몸 점검

‘블레이드 러너’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4)가 1600m 계주에서도 잘 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피스토리우스는 24일 선수촌에서 취재진에게 훈련모습을 공개하면서 “팀원들과 몇 차례 달려 보니 기록이 좋았다”며 “몇 번째 주자로 뛰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주종목인 400m와 1600m 계주에 출전하는 피스토리우스가 바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넘어지면 의족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상할 수 있

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피스토리우스는 다른 주자들보다는 바통 터치 부담이 적은 첫 번째 주자로 뛰어야 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피스토리우스는 “몇 번이나 트랙을 달렸지만 사고를 일으킨 적은 없다”며 “나는 같은 레인에서 달리고 또 달린다. 몇 번째 주자로 뛰든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계주는 스프린터가 팀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훌륭한 선수들과 팀을 이뤄 달리게 돼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평상시 사용하는 의족을 착용하고 훈련장에 도착한 뒤 경기용 의족인 ‘플렉스 풋 치타’로 갈아 신은 피스토리우스는 경기장 주변을 몇 바퀴 돌면서 가볍게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100m를 전력 질주하면서 몸 상태를 점검했다. 그는 주종목인 400m의 성적 전망에 대해 “높은 단계로 오르면 좋겠지만 나로서는 최대한 열심히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첨단 계측 장비 총출동

멀리뛰기 비디오 측정 ... 줄자 사라진다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멀리뛰기 비디오 측정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다. 대구 세계육상조직위원회는 24일 비디오 거리 측정 시스템(VDM·Video Distance Measurement System)이 멀리뛰기에 사용된다고 밝혔다. 그간 멀리뛰기에서는 선수가 구름판을 밟고 모래에 착지했을 때 뛰는 거리를 줄자로 잴지만 이번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관중석 최상단에 설치된 네 대의 카메라는 선수의 모래판 착지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곧바로 거리로 환산, 심판들이 기록을 정확히 판정하도록 돕는다. 조직위는 정확성

은 물론 기록 측정 시간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단거리의 상징인 100m 사진 판독도 더 정교해졌다. 그간 결승선 양쪽에만 뒀던 카메라를 이번에는 결승선 왼쪽 노란 기둥 위에 1대, 사진 판독실에 두 대로 늘렸다. 1초에 2000 장의 사진을 찍어 박빙의 순간까지도 잡아내겠다는 게 기록 계측회사 세이코의 설명이다. 이밖에 투척 종목에도 광과 측정 시스템(ODM·Optical Distance Measurement System)을 가동한다. 창과 원반 등이 착지하는 지점에 ‘프리즘’이라고 불리는 측정 막대를 꽂고 광 측정기를 이용해 거리를 계산하는 장비다. /연합뉴스

‘10-10’ 목표 이루자

한국 선수단 출정식

제13회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이 25일 선수촌에서 출정식을 열고 결의를 다진다. 한국 선수단은 지난 10일 태릉선수촌에서 발대식을 열고 “우리는 한다! 된다! 됐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10개 종목에서 10명의 결선 진출자를 배출하자는 ‘10-10’ 목표를 꼭 이뤄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단체전 메달에 도전하는 여자 마라톤 대표팀과 남자 400m 계주대표팀 등 남녀 단거리 선수들이 24일 선수촌에 입촌했고, 남자 마라톤 대표팀만 현재 바깥에서 페이스를 끌어 올리고 있다. 이번 대회를 개최하는 홈팀으로 남녀 47개 종목에 최소 1명 이상의 선수를 내보낼 수 있는 한국은 참가 202개국 중 5번째로 많은 63명의 선수를 파견했다. /연합뉴스

유동훈 부진·손영민 부상...날개없는 추락

‘동네북 불펜’ KIA 속앓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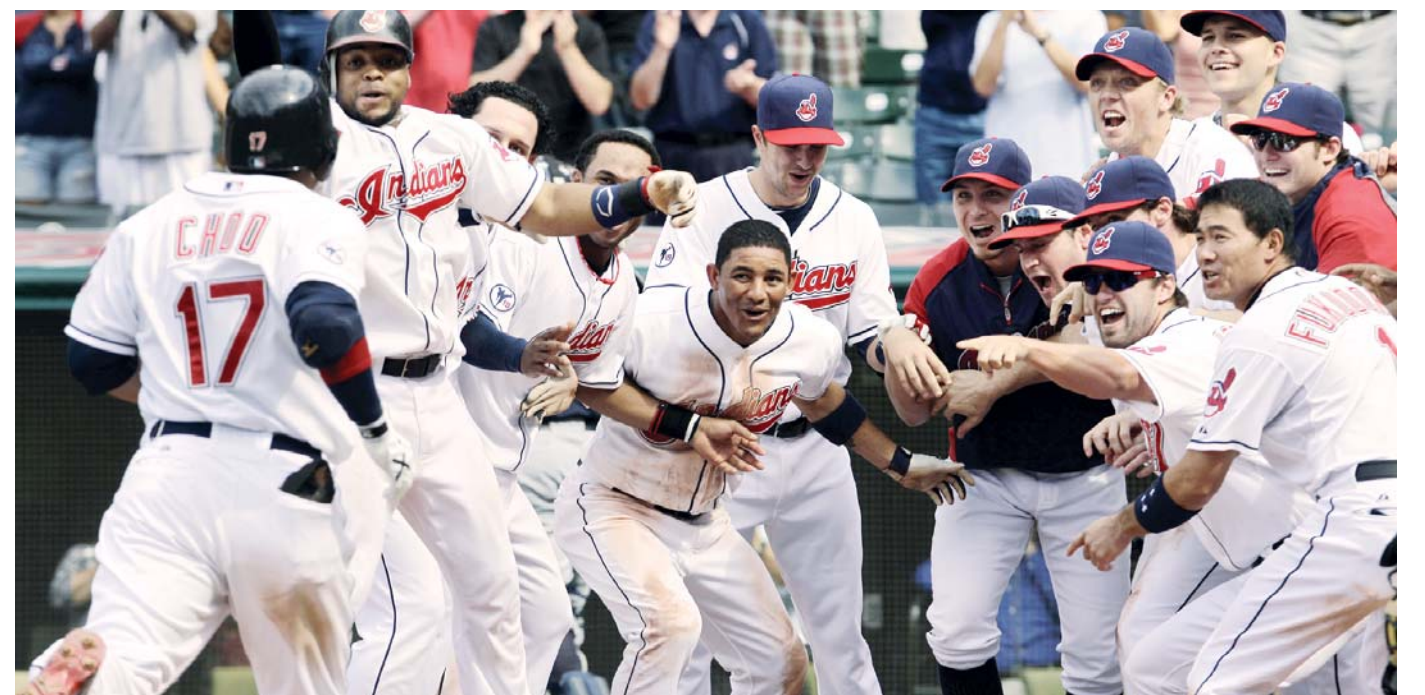
트레비스와 이범호를 통해 투·타의 전력을 보강한 KIA는 삼성을 두 게임차로 누르고 1위로 전반기를 마감하면서 ‘우승후보’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하지만 후반기 마운드 운영이 영기면서 팀 성적도 함께 꼬여버렸다. 양현종과 유동훈의 부진 속에 언박자 운영이 계속되면서 마운드가 동반 침체에 빠졌다. 23일 사직원정에 나선 KIA는 16~18일 홈경기에서 3패를 안겨준 롯데를 상대로 설욕전에 나섰다. 홈런 두 개를 터트린 나지완의 활약 속에 KIA 타선이 대거 9점을 뽑아냈지만 결과는 9-13패였다. 선발 양현종이 1회부터 5실점을 하는 등 흔들리며 3회 조기 강판됐고, 김희걸-조태수-박성호가 투입됐지만 불발은 롯데 방방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주 4경기에 등판해 6과3분의 2이닝을 던졌던 김희걸과 세 경기에 등판해 4과3분의 1이닝을 막았던 조태수가 양현종에 이어 다시 마운드에 올랐지만 7실점을 하며 고개를 숙였다. 앞선 17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3이닝 4실점으로 무너진 양현종은 23일에도 3이닝 5실점으로 롯데를 맞으며 방어율

이 6.01까지 뛰어올랐다. 올 시즌 18번의 선발 등판에서 5회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진 것은 6번. 20번의 선발 등판에서 94와3분의 1이닝을 던지는 데 그쳤다. 양현종의 부진은 고스란히 불펜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실상가상 마무리 후보였던 유동훈의 추락도 계속되면서 ‘불펜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유동훈은 23일 현재 41경기에 나와 3승3패7세이브2홀드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방어율은 3.92로 4집대에 육박하고 불펜 세이브도 4차례 기록했다. 계속된 추락에 필승조 자리를 내주고 불펜에서 입지가 애매해졌다. V10를 함자했던 양현종-유동훈이 마운드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면서 손영민이 희생양이 됐다. 손영민은 18일 어깨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기 전까지 51경기에 나와 82이닝을 소화하며 ‘불펜의 마당쇠’ 역할을 했다. 후반기 팀 순위 싸움에 비상이 걸리면 손영민이 책임져야 하는 이닝이 길어졌고, 어깨 통증도 악화됐다. 결국 뺀죽한 마운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KIA는 선발의 어깨만 지켜보는 처지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끝내기 3점포 ... 2경기 연속 홈런

미국프로야구에서 활약하는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생애 첫 끝내기 홈런을 포함해 2경기 연속으로 아치를 그렸다. 추신수는 24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전 소속팀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더블헤더(연속경기) 1차전 홈 경기에서 4-5로 뒤진 9회말에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려 클리블랜드의 7-5 승리를 완성했다.

추신수는 이어 열린 더블헤더 2차전에서 또 솔로 홈런포를 가동했다. 추신수가 올 시즌 터뜨린 7, 8호 홈런이다. 이번 홈런은 지난 21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방망경기 이후 사흘 만에 터졌다. 추신수는 원소속팀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회복해 그라운드로 복귀한 지난 13일 이후 10여 일 동안 3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건재를 과시했다. /연합뉴스



“영웅, 추를 맞이하라”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의 추신수가 24일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더블헤더 1차전 홈경기에서 4-5로 뒤진 9회말 역전 3점 홈런을 터뜨린 뒤 홈에서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GRAND OPEN 유 · 스퀘어 사우나 24시
8월 30일

위치 : 유 · 스퀘어, 광천동 버스터미널 2층 주차안내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